

한국판 외상 관련 수치심 척도(K-TRSI) 타당화 연구[†]

김 주 희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박 성 용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BK21 박사후연구원

최 윤 경[‡]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외상 경험자들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도중 또는 그 사건 이후 다시 평가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자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자의식 정서인 수치심을 경험하며, 수치심은 심리적 고통과 PTSD 증상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이다. 본 연구는 외상 관련 수치심 척도 (Trauma-Related Shame Inventory [TRSI])의 국내 적용을 위해 한국어로 번안 후,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평행분석과 Rasch 분석, 수렴 및 변별 타당도 검증을 통한 K-TRSI의 심리측정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참여자는 외상 사건 경험이 있는 390명의 성인으로, 온라인 조사를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분석 결과, K-TRSI의 1요인 모형이 적합하였고, 문항의 응답범주 역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차별기능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외상 관련 죄책감, 자기자비와의 상관분석 결과는 K-TRSI가 외상 관련 수치심 측정에 타당한 도구임을 보여주었다. 이후 다양한 임상 및 연구 장면에서 K-TRSI의 활용 가능성과 더불어,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의 방향성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외상 관련 수치심, 타당화, Rasch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C2A02090 708)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최윤경,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번지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Tel: 053-580-5405, E-mail: ykchoi@kmu.ac.kr

외상과 같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도중 혹은 그 이후 사건을 다시 평가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서를 외상 관련 정서라고 한다(DePrince et al., 2010). 외상 관련 정서는 1차 정서와 2차 정서로 구분된다. 위협으로 느낀 것에 대한 반사적이고 자동적인 정서 반응을 1차 정서(예: 두려움, 공포), 사건 이후 재경험하거나 인지적 처리 과정에서 평가하는 정서 반응을 2차 정서(예: 수치심, 죄책감)로 구분한다(Andrew et al., 2000; Hathaway et al., 2010). 이러한 외상 관련 정서는 심리적 고통을 유지시키는 주요 변인이다(송미란, 김영근, 2022; 이정아, 박경, 2019; Adler et al., 2008; Andrew et al., 2000; Filipas & Ullman, 2006). 또한,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 [DSM-5];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진단 기준 D 인지 및 기분에서 부정적인 변화에 외상 관련 정서가 포함되었고, 이전 버전에서는 외상 노출 후 부정 정서에 두려움, 무력감, 공포가 제시되었던 것과 달리 DSM-5에서는 분노, 죄책감, 수치심과 같은 2차 정서가 추가 언급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그 중에서도 수치심은 자기 자신과 관련된 부정적 평가에서 비롯된 감정이라는 점(Lewis, 1971; Tracy & Robins, 2004)과 사회적 규범과 관련된다는 점(Budden, 2009)에서 죄책감이라는 정서와 유사한 측면이 많다(김용태, 2010; Lewis, 1971). 하지만 죄책감은 대상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반면, 수치심은 전반적인 자기(self)와 관련이 된다는 점에서 수치심은

죄책감과 구별된다(안현의 외, 2012; Lewis, 1971). 즉, 수치심은 자기 자신의 핵심 정체성에 영향을 주어 자신은 결함이 있고 가치가 없으며 손상되었다고 느끼게 하지만, 죄책감은 정체감은 온전하나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상 관련 수치심은 더 심각한 PTSD 증상과(Andrews et al., 2000) 장기적인 임상적 문제와 관련된다(Feiring & Taska, 2005).

수치심은 사회적·문화적 규범이나 기대를 위반했다는 자기 판단에서 비롯된 일련의 고통스러운 정서적 및 인지적 상태로 정의된다(Saraiya & López-Castro, 2016). 즉, 자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자의식 정서이자 사회적 정서(Gilbert, 1997; Saraiya & López-Castro, 2016; Tracy & Robins, 2004)로, 존엄성과 권력 상실에 대한 지각과 관련된다(Wilson et al., 2006). 유사하게, Budden(2009)은 수치심이란 사회적으로 뿌리를 둔 경험으로 간주하고 외상의 맥락에서 수치심을 정의하며, 외상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자신의 가치관과 사회적 기대, 규범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회적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또한, Økstedalen 등(2014)은 외상 관련 수치심을 외상의 맥락에서 고통스러운 정서적 경험을 동반한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그리고 자신이 지각한 자신의 결함을 감추고 타인으로부터 철수하려는 행동적 경향으로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수치심은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개인이 존엄성과 도덕적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적응적일 수도 있으나, 외상 관련 수치심은 외상 사건의 인지적×정서적 처리(Ehlers & Clark, 2000)와 외상 기억과 개인의 정체성의

통합을 방해하여(Herman, 2015) 회복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또한, 외상 관련 수치심은 다양한 외상 사건에서 나타나며, 부적응적인 행동양식 및 정서를 초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참전 군인(Soberay, 2018), 강간 피해자(Bhuptani & Messman, 2021; Robinson, 2022), 아동기 성학대 피해자(Dorahy & Clearwater, 2012; MacGinley et al., 2019) 대상 연구에서 모두 수치심과 PTSD 증상의 정적 상관이 일관되게 보고되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PTSD의 증상의 발달 및 심각도의 주요 예측 요인으로 작용하고(이정아, 박경, 2019; Andrews et al., 2000; Soberay, 2018; Tangney & Fischer, 1995; Tipsword et al., 2022), 외상 이후 전반적이고 안정적인 귀인양식에 기반한 수치심을 가질 때 PTSD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eiring et al., 1996; Robinaugh & McNally, 2010). 더하여, 극심한 충동성(Forkus et al., 2023), 강박(Badour et al., 2022), 우울(Bhuptani & Messman, 2021) 등의 정신병리와 연관되어(Brewin et al., 2000; Roemer et al., 1998), 수치심은 중요한 정서로 간주되고 있다.

이처럼 임상 및 상담 장면에서 외상 관련 수치심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지만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수치심 척도를 외상 경험자에게 사용함에 따라 외상 관련 수치심에 대한 평가가 제한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송연주, 하문선, 2020; Beck et al., 2011; Dorahy et al., 2013). 구체적으로 Cook(1987)이 개발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는 낮은 자기존중감과 변별이 어렵고(Tangney, 1995), Tangney 등(1989)이 개발한 자의식적 정서 척도(Test of Self-Conscious Affect [TOSCA])는 가상 시나리

오를 통해 수치심을 측정하여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 한정되어 있다. 또한, 수치심 경험 척도(Experience of Shame Scale [ESS]) 역시 성격적 수치심 외에 신체적, 행동적 수치심이 포함됨에 따라 외상과 관련한 수치심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Økstedalen 등(2014)이 PTSD 진단을 받은 후 병원에서 치료 중인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 및 타당화 한 외상 관련 수치심 척도(Trauma-Related Shame Scale [TRSI])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 하여 국내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Økstedalen 등(2014)은 일반화 가능성도 이론(generalizability theory; Brennan, 1992; Shavelson & Webb, 1991)을 적용하여 자가 보고된 척도 점수를 바탕으로 분산-공분산 추정치 행렬을 통해 요인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외상 관련 수치심은 감정 및 행동, 그리고 이러한 감정이 자신 때문인지 타인의 시선 때문인지에 따라 (a) 내적 비난 수치심, (b) 내적 정서-행동 수치심, (c) 외적 비난 수치심, (d) 외적 정서-행동 수치심의 네 가지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수치심과 죄책감은 다른 감정으로 구분되었으며, 자기자비 중 자기판단과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더불어, 신뢰도가 높아 스크리닝 척도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Økstedalen et al., 2014). 그러나 내적 수치심과 외적 수치심의 조작화가 유사하여 요인 간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다변량 일반화 가능성도 분석 결과, 내적 및 외적 수치심이 별개의 요인으로 구분되기보다는 동질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문화권마다 수치심을 경험하고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어

(Stadter & Jun, 2020), 한국인을 대상으로 TRSI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단 차원의 정보만 제공하는 일반화 가능성도 이론을 보완할 수 있는 Rasch 모형을 적용하여(Bachman et al., 1995), 국내 외상 경험자들에게 TRSI의 문항이 적절하고 타당한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TRSI 원저자의 허락을 받아 한국어로 변안하고 국내 외상 경험자에게 TRSI의 요인 구조를 검증한다. 둘째, Rasch 모형(Rasch, 1960)을 적용하여 문항의 난이도, 적합도, 응답 범주의 적절성, 성별에 따른 차별 기능 문항의 존재 여부를 평가한다. 이를 통해, 중복되거나 적합성이 부족한 문항을 선별하고, K-TRSI의 타당성을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검토한다. 셋째, 원척도에서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를 고려하여 K-TRSI와 PTSD 증상, 외상 관련 죄책감, 자기자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수렴 및 변별타당도의 검토를 통한 구성타당도의 증거를 확보하고자 한다.

방 법

참여자

참여자는 생애 중 1회 이상의 외상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만 18세에서 60세 사이의 성인 390명(남성 195명, 여성 195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령은 38.77세($SD=10.72$)였다. 학력은 대학 졸업자가 264명(67.7%)이었으며, 경제적 상태는 중간이 194명(49.8%)이었다(표 1). 여러 외상 사건을 경험한 복합 외상 경험자는 335명(85.90%)이었다.

외상 사건 빈도 및 성별에 따른 외상 사건 빈도 차이는 다음과 같다(표 2). 가장 많이 간접적으로 경험한 외상은 교통사고 127명(32.6%)와 학교폭력 127명(32.6%), 자연 재해 71명(18.2%), 보호자로부터의 방임 및 언어 폭력 39명(10.0%)과 교제폭력 39명(10.0%) 순이었다.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외상은 교통사고 169명(43.3%), 자연 재해 124명(31.8%), 성추행 96명(24.7%)이었다.

또한, 성폭력($\chi^2=11.38, p<.001$)과 성추행($\chi^2=62.95, p<.001$)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보고하였으며, 반복적인 보호자의 신체적 폭력($\chi^2=8.14, p<.05$)과 보호자의 정서적 방임 및 언어적 폭력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390$)

변인	구분	사례 수(%)
성별	남자	195(50.0%)
	여자	195(5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1(23.2%)
	대학 졸업	264(67.7%)
	석사 이상	35(9.1%)
	낮음	134(34.4%)
경제적 상태	중간	194(49.8%)
	높음	62(15.8%)

표 2. 성별에 따른 외상사건의 빈도(%)

		직접 목격함	직접 경험함	직접 목격 혹은 경험 없음	χ^2	p
교통사고	전체	127(32.6%)	169(43.3%)	94(24.1%)	3.59	0.17
	남성	67(34.4%)	89(45.6%)	39(20.0%)		
	여성	60(30.8%)	80(41.0%)	55(28.2%)		
자연재해	전체	71(18.2%)	124(31.8%)	195(50.0%)	3.92	0.14
	남성	43(22.1%)	60(30.8%)	92(47.2%)		
	여성	28(14.4%)	64(32.8%)	103(52.8%)		
성폭력	전체	13(3.3%)	24(6.2%)	353(90.5%)	11.38	0.00***
	남성	7(3.6%)	4(2.1%)	184(94.4%)		
	여성	6(3.1%)	20(10.3%)	169(86.7%)		
성추행	전체	29(7.4%)	96(24.7%)	265(67.9%)	62.95	0.00***
	남성	22(11.3%)	15(7.7%)	158(81.0%)		
	여성	7(3.6%)	81(41.5%)	107(54.9%)		
반복적인 보호자의 신체적 폭력	전체	23(5.9%)	46(11.8%)	321(82.3%)	8.14	0.02*
	남성	18(9.2%)	24(12.3%)	153(78.5%)		
	여성	5(2.6%)	22(11.3%)	168(86.2%)		
보호자의 정서적 방임 및 언어적 폭력	전체	39(10.0%)	94(24.1%)	257(65.9%)	8.19	0.02*
	남성	27(13.8%)	39(20.0%)	129(66.2%)		
	여성	12(6.2%)	54(27.7%)	129(66.2%)		
교제폭력	전체	39(10.0%)	36(9.2%)	315(80.8%)	3.01	0.22
	남성	22(11.3%)	13(6.7%)	160(82.1%)		
	여성	17(8.7%)	22(11.3%)	156(80.0%)		
학교폭력	전체	127(32.6%)	94(24.1%)	169(43.3%)	21.66	0.00***
	남성	69(35.4%)	62(31.8%)	64(32.8%)		
	여성	58(29.7%)	31(15.9%)	106(54.4%)		

주. * $p < .05$, *** $p < .001$.

($\chi^2=8.19$, $p<.05$), 학교 폭력($\chi^2=21.66$, $p<.001$)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보고하였다.

측정도구

외상 사건의 경험 여부. 본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스크리닝 하기 위해 김소희와 유금란(2021)이 국제질병분류(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8)를 기준으로 외상 유

형을 분류한 것을 참고하여, 외상 사건을 교통사고, 홍수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 성폭행, 성추행, 부모의 반복적인 신체적 폭행, 부모의 정서적 방임 및 언어폭력, 데이트폭력, 학교폭력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8가지 외상 사건에 대해 ‘직접 목격했다’, ‘직접 경험했다’, 또는 ‘직접 목격 혹은 경험한 적 없다’ 중 하나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고, ‘직접 목격했다’ 또는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한 문항이 한 개 이상인 경우에 본 연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외상 관련 수치심 척도(Trauma-Related Shame Inventory [TRSI]). Øktdalen 등(2014)이 개발한 TRSI는 총 24문항으로, 외상 경험 이후 겪을 수 있는 수치심 정서에 대해 내적 비난 수치심, 내적 정서-행동 수치심, 외적 비난 수치심, 외적 정서-행동 수치심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에 대해 지난 일주일 간 외상 관련 수치심을 느낀 정도를 0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3점(매우 그렇다)까지 4점 Likert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 범위는 0점에서 72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관련 수치심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Øktdalen 등(20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7,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는 .97으로 나타났다.

외상 관련 죄책감 척도(Trauma-Related Guilt Inventory [TRGI]). Kubany 등(1996)이 개발한 TRGI는 총 32문항으로, 정희진(2011)이 번안 및 타당화 한 결과, 전반적 죄책감, 부정적 스트레스, 사후 해석 편향 및 책임, 부적절한 행동, 정당성 결여 총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 지난 일주일 간 외상 관련 죄책감을 느낀 정도를 0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 범위는 0점에서 128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에 해당하는 외상 관련 죄책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희진(201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7,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는 .95으로 나타났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체크리스트-5(PTSD Checklist for DSM-5 [PCL-5]). Weathers 등(2013)이 개발한 PCL-5는 총 20문항으로, 이동훈 등(2020)이 번안 및 타당화 한 결과, 침습, 회피, 인지 및 감정의 부정적 변화, 과각성 총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 지난 한 달 간 외상 관련 증상을 느낀 정도를 0점(그렇지 않았다)에서 4점(항상 그랬다)까지 5점 Likert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 범위는 0점에서 8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관련 증상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동훈 등(202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침습 .92, 회피 .91, 인지 및 기분의 부정적 변화 .93, 과각성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는 .96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Korean Self-Compassion Scale [K-SCS]). Neff(2003a)가 개발한 SCS는 총 26문항으로, 김경의 등(2008)이 번안 및 타당화 한 결과, 자기친절, 자기판단, 보편적 인간성, 고립, 마음챙김, 과잉동일시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각 자기친절은 자기판단과, 보편적 인간성은 고립과, 마음챙김은 과잉동일시와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소개되고 있다. 특히 자기자비는 수치심과 반대되는 요인이자 외상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에 대한 치료적 요소이며(Kelly et al., 2009; Sedighimornani et al., 2019), 원저자의 TRSI에서도 변별 타당도 확인을 위해 사용되었다. KSCS는 각 문항에 대해 자기자비 정도를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심하게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김경의 등(200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자기친절 .74, 자기판단 .77, 보편적 인간성 .71, 고립 .81, 마음챙김 .78, 과잉동일시 .6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기친절 .80, 자기판단 .83, 보편적 인간성 .82, 고립 .84, 마음챙김 .80, 과잉동일시 .83으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우선, Økstedalen 등(2014)이 개발한 TRSI의 원저자에게 번안 및 타당화에 대한 동의를 구해 TRSI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TRSI 번안단계에서는 International Test Commission (ITC) 가이드라인에 기반하여 번역-역번역-동등성 비교-문항수정 과정을 거쳤다. 구체적으로 임상 및 상담심리 석·박사 4인이 원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하였고, 토의를 통해 원래 척도와 일치하지 않거나 의미가 서로 다른 문항을 수정하여 한국어 버전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후 심리학 미국 박사 1인에 의해 실시된 역번역본과 원 척도 문항 간의 의미 동등성 비교를 네이티브 영어 사용자(임상심리 전공 석사)가 실시하였다. 동등성 비교는 1-7점 사이에서 번역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5점 이하 문항은 점검 후 수정하였고 임상심리 대학원생 9인과 임상심리 박사 1인 및 교수 1인에 의한 문항 점검을 통해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계명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연구승인(40525-202304-HR-009-03)을 받았으며,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데이터 수집 및 관리,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는 온라인 서베이 전문기관을 통해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수집되었고, 참여자들은 서베이 전문기관 산하의 기관에서 쓸 수 있는

소정의 포인트를 지급받았다.

자료분석

외상 관련 수치심 척도를 타당화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되었다. 첫째, SPSS 27.0를 사용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 및 빈도분석 및 카이제곱 검정,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둘째, Rasch 모형 적용하기 위해 척도 문항이 일차원성을 가정하고 있는지(Bond & Fox, 2013) 확인하기 위해 SPSS 27.0를 사용하여 평행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차원성 검증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크리 도표는 요인의 과잉 추출 및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적합한 방법인 평행분석을 실시하였다(Velicer et al., 2000). 평행분석은 카이저나 스크리 검사가 고려하지 않는 표본의 고유값(eigenvalue)과 표집오차를 반영하여 요인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더 논리적이고 정확한 결과를 제공한다(Crawford et al., 2010; Zwick & Velicer, 198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PSS 27.0에서 O'Connor(2000)의 명령문을 사용하여 평행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표본의 고유값이 무선적으로 얻은 고유값과 같거나 더 작은 경우를 표집 오차에 의한 우연적 결과로 간주하고, 더 큰 경우를 확인하여 요인 수를 결정하였다(Hayton et al., 2004).

셋째, TRSI의 문항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jMetrik 4.0(Meyer, 2014)을 사용해 Rasch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점척도 모형(polytomous model) 중 Andrich(1978)의 평정척도모형을 적용하였다. 평정척도모형은 문항 난

이도는 각기 다르지만 응답구조는 문항에 따라 동일하다고 가정하며, 따라서 응답 범주의 간격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Likert 척도를 사용한 경우에 사용된다(Hong et al., 2005). K-TRSI 역시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에 평정척도모형을 선택하였다.

넷째, 문항 내용의 중첩 여부와 적절성 판단을 위한 문항의 적합도(MNSQ)는 문항 난이도와 비가중 평균자승(unweighted mean square: Outfit)과 가중 평균자승(weighted mean square: Infit) 지수를 살펴보았다. 이때 Outfit과 Infit의 값이 0.7 이하(해당 문항이 다른 문항과 지나치게 중복됨) 또는 1.3 이상(해당 문항이 다른 문항과 지나치게 동떨어짐)일 때는 적합도가 좋지 않은 경우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연구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되어 고려하였다(Karabatsos, 1997).

다섯째, 문항 난이도(item difficulty)와 간결성, 응답 범주의 수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국내 외상 경험자라는 모집단의 특성 수준에 맞는지 확인하였다(DeMars, 2010). Rasch 분석을 사용하는 성격검사에서 높은 난이도는 문항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홍세희 외, 2018; 홍세희, 조용래,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난이도가 높다는 것은 문항 내용이 동의하기 어려울 만큼 강한 정도의 외상 관련 수치심을 측정하는 문항을 의미한다. 평가 그래프의 x축은 개인의 외상관련 수치심 정도, y축은 문항 난이도 분포가 나타나 두 분포의 범위가 일치하면 문항 난이도가 개인의 수치심 범위를 측정하는 범위가 비슷하다고 간주한다(Hong et al., 2005). 이때 개인의 특질 점수와 문항 난이도를 logit 척도로 변환함

으로써 동일한 척도 내에서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후,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된 K-TRSI의 응답 범주가 타당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개인의 특질 수준(외상 관련 수치심 정도)을 x축으로 하고, 0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3점(매우 그렇다)까지의 선택지에 따른 선택 확률을 y축으로 하는 범주 확률 곡선을 확인하여, 표본이 수치심 측정에 적절한지를 평가하였다.

여섯째, 응답 범주의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응답 범주가 증가함에 따라 Threshold 값이 증가하는지 확인하였다.

일곱째, 여성들이 남성보다 외상 후 수치심을 더 많이 보고한다는 연구(Aakvaag et al., 2016; Wetterlöv et al., 2021)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기능하는 문항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Mantel-Haenszel chi-square 값(Mantel, 1963)과 표준화된 sP-DIF, 그리고 이에 따른 ETS DIF 수준(Dorans et al., 1992)을 확인하였다. 이때 sP-DIF는 추정된 효과 크기에 응답 범주를 나눈 값의 절댓값을 사용하며, .05 미만은 AA등급, .05 이상이고 .10 미만인 경우는 BB 등급, .10 이상은 CC 등급으로 분류하며, AA 등급에 가까울수록 차별기능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K-TRSI와 외상 관련 죄책감, 수치심, 외상 증상, 자기자비의 상관 분석을 통하여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K-TRSI가 외상 관련 수치심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신뢰도 분석

각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K-TRSI 평균은 $0.96(SD=0.73)$ 이었으며, 내적 수치심(내적 비난, 내적 정서-행동 수치심) 평균은 $0.97(SD=0.74)$, 외적 수치심(외적 비난, 외적 정서-행동 수치심) 평균은 $0.92(SD=0.74)$ 으로 나타났다. 원척도에서 전체 평균은 보고되지 않았으나, 내적 수치심과 외적 수치심의 척도 응답 평균은 각각 $1.20(SD=0.87)$, $0.79(SD=0.80)$ 으로, 본 연구의 K-TRSI와 비슷한 정도였다. TRGI 평균은 $1.63(SD=0.74)$, K-SCS 긍정적 자기자비(자기친절, 보편적인 인간성, 마음챙김) 평균은 $3.03(SD=0.72)$, 부정적 자기자비(자기판단, 고립, 과잉동일시) 평균은 $2.99(SD=0.82)$, PCL-5 평균은 $1.30(SD=0.88)$ 이었다.

또한, K-TRSI에서 각 문항들의 기술통계를 검토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23번 문항 ‘나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나 자신이 역겹다($M=0.76$, $SD=0.85$)’의 평균이 가장 낮았고, 13번 문항 ‘외상 경험으로 인해, 내게서 없애고 싶은 면이 생겼다($M=1.19$, $SD=0.93$)’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Cronbach's α 는 .98로, 해

석 기준 .80 이상(Fox & Jones, 1998)을 충족하였다.

일차원성 검증

평행분석 결과, 요인 수 1개 이후부터는 실제 자료의 고유값이 무선 추출한 고유값보다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요인 수는 1개가 적절하여(Hayton et al., 2004) 일차원성이 성립되는 것으로 나타나 Rasch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표 3).

문항 난이도(item difficulty) & 적합도 분석(MNSQ)

표 4에는 문항 난이도 및 적합도, 기술통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13번 문항(외상 경험으로 인해, 내게서 없애고 싶은 면이 생겼다)은 outfit이 1.3 이상으로 분석되어 다른 문항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다. 13번 문항을 제외한 문항들의 적합도 지수는 모두 0.7 ~ 1.3의 범위에 해당되었다.

개인 특질 점수(즉, 외상 관련 수치심 총점)와 난이도 분포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문항에 대해 개인의 수치심 정도와 난이도를 비교한 결과, logit 0을 기준으로 분포가 대부분 낮은 점수로

표 3. 평행분석 결과

	Real-data eigenvalues	95% of random eigenvalues	comparison
1요인 모델	16.355	1.470	R-eigen>95-eigen
2요인 모델	.935	1.399	R-eigen<95-eigen
3요인 모델	.631	1.341	R-eigen<95-eigen
4요인 모델	.565	1.289	R-eigen<95-eigen

표 4. 문항 난이도 및 적합도, 기술통계

문항 번호	내용	난이도 및 적합도			기술통계	
		난이도	infit	outfit	<i>M</i>	<i>SD</i>
1	외상 사건으로 인해, 나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 힘들다	-.22	1.09	1.14	1.00	0.86
2	나에게 일어난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	-.06	1.03	1.06	.996	0.86
3	나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내 자신이 수치스럽다	-.28	1.08	1.05	1.02	0.90
4	내가 겪은 외상 사건의 결과로,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이 드러났다.	-.55	1.12	1.15	1.09	0.88
5	외상 사건으로 인해,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	.10	0.93	0.87	0.92	0.85
6	사람들이 나에게 일어난 일을 알게 되면, 나를 열등하게 볼 것이다	-.10	1.00	0.95	0.96	0.88
7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일을 알게 되면, 나를 혐오스러워 할 것이다	.15	0.93	0.86	0.91	0.88
8	외상 사건을 경험하는 동안 내가 했던 행동이 수치스럽다	-.10	0.95	0.87	0.97	0.88
9	내게 일어난 일이 매우 수치스러워서, 종종 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16	0.91	0.83	0.99	0.91
10	내가 겪은 외상 사건의 결과로, 나는 나 자신을 덜 매력적으로 느낀다.	-.27	1.12	1.23	1.01	0.88
11	외상 사건 동안 내가 느꼈던 감정이 수치스럽다	-.54	1.03	1.05	1.08	0.95
12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일을 알게 되면, 나를 경멸할 것이다	.26	0.93	0.81	0.87	0.88
13	외상 경험으로 인해, 내게서 없애고 싶은 면이 생겼다	-.91	1.25	1.31	1.18	0.93
14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일을 알게 되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13	0.86	0.80	0.91	0.89
15	외상 경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내가 열등하다고 느낀다	.10	1.10	1.06	0.92	0.90
16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일을 알게 되면, 나를 수치스러워 할 것이다	.24	0.92	0.99	0.88	0.86
17	사람들이 내게 일어난 일을 알게 된다면, 나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할 것이다	.28	0.95	0.90	0.87	0.89
18	외상 사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내 일부가 드러났다	.18	0.94	0.93	0.90	0.83
19	사람들이 외상 경험 동안의 내가 했던 행동을 알게 된다면, 나를 수치스러워 할 것이다	.39	0.91	0.82	0.85	0.89
20	외상 경험 때문에, 스스로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내 일부가 드러났다	.19	0.95	1.05	0.90	0.86
21	외상 사건으로 인해,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	.16	0.96	1.05	0.91	0.89
22	사람들이 외상 경험 동안의 내가 느꼈던 감정을 알게 된다면, 나를 수치스러워 할 것이다	.16	0.93	0.96	0.90	0.88
23	나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나 자신이 역겹다	.75	1.03	1.12	0.76	0.85
24	나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싶지 않다.	.12	0.97	1.06	0.92	0.90

주. 13번 ‘외상 경험으로 인해, 내게서 없애고 싶은 면이 생겼다’는 outfit이 1.31로 더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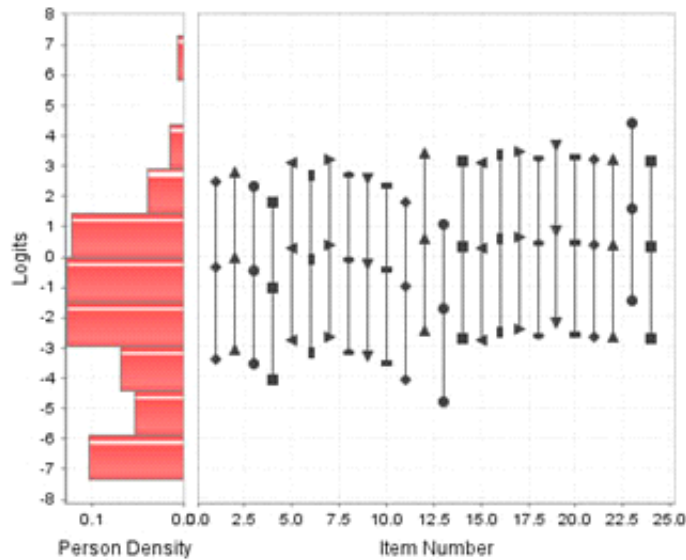


그림 1. 개인 특질 점수와 문항 난이도 분포 비교

분포되어 있어 참여자의 수치심이 낮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외상 관련 수치심 척도의 기능의 차이는 없으므로 나타났다.

응답 범주의 타당성 검증

응답 범주 타당성 검증 결과, 모든 문항에서 응답 범주가 증가할수록 Threshold 값이 증가하였다(-2.97, 0.08, 2.89). 즉, 모든 문항에서는 logit 차이가 클수록 척도점수 값이 높아지면서 응답 범주도 높은 값을 가지며, 범주 간 간격도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4점 척도 구성이 적절함을 나타내었다.

차별기능문항분석

외상 관련 수치심 척도와 관련하여 성별에 따라 다르게 기능하는지 확인한 결과, 모든 분류 수준이 'AA(거의 무시할 만한 DIF)'로, 성별에 따른

수렴 및 변별타당도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K-TRSI와 TRGI, PCL-5, K-SCS 점수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K-TRSI는 TRGI($r=.77, p<.001$) 및 PCL-5($r=.69, p<.001$)와 강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K-SCS의 하위척도 중 자기판단($r=.51, p<.001$), 고립($r=.55, p<.001$), 과잉동일시($r=.49, p<.001$)와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자기친절($r=.17, p<.01$), 보편적 인간성($r=.16, p<.01$), 마음챙김($r=.09$)과는 상관이 낮거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 관련 수치심을 측정하는 K-TRSI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관련 죄책감과 PTSD 증상을 많이 경험하고 자기자비와는 거리가 멀다는 의미

표 5. K-TRSI의 수렴 및 변별, 준거, 동시 타당도

	TRGI	PCL-5	K-SCS				
			자기친절	보편적인간성	마음챙김	자기관단	과잉 동일시
K-TRSI	.77***	.69***	.17**	.16**	.09	.51***	.55***

주. K-TRSI=Korean Trauma-Related Shame Inventory, TRGI=Trauma-Related Guilt Inventory, PCL-5=PTSD Checklist - 5, K-SCS=Korean Self-Compassion Scale.

** $p < .01$, *** $p < .001$.

로, K-TRSI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가 비교적 양호함을 시사한다.

논 의

본 연구는 Rasch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외상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국어판 외상 관련 수치심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K-TRSI의 Cronbach's α 는 .98로,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으며, 국내 외상 경험자에게 있어 1요인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척도가 내적 비난 수치심, 외적 비난 수치심, 내적 정서-행동 수치심, 외적 정서-행동 수치심의 4요인(Økstedalen et al., 2014)으로 구성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Økstedalen 등 (2014)이 TRSI의 공분산 결과에서 하위요인이 본질적으로 동일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고, 하위척도 간 강한 정적 상관관계(.82 ~ .90)가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1요인 모형이 적합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가 어느 정도 설명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척도에서 정의한 외상 관련 수치심의 기반인 Gilbert(1997)의 연구에 따르면 내적 수치심과 외적 수치심이 서로 상관이 있으나 얼마나 강하게 상관될 수 있는지는 명시하지 않았

으며, Lewis(1995) 역시 외적 수치심과 내적 수치심이 융합되어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자신이 낮게 판단되어 수치심을 느낀다는 인식은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이 투영된 형태로 설명하였다(Wilson et al., 2006). 이에 따라 개인은 타인에 의해 느끼는 수치심과 자기 자신이 바라보는 수치심이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경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어 본 연구에서도 1요인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개인 특질 점수와 문항 난이도를 비교한 결과, 개인이 느끼는 수치심 정도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 내용이 K-TRSI에 어느 정도 적절히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개인의 속성 점수 분포와 문항 난이도 분포는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 참여자의 수치심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가 가능한 이유로, 먼저, 심한 수치심을 가진 개인(Logit 6~7)을 측정하는 문항이 실제로 부족했을 수 있다. K-TRSI의 문항들은 대부분 '수치스럽다'는 정서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문항에서 좀 더 부정적 정서 단어는 7번 '혐오스럽다', 12번 '경멸하다', 23번 '역겹다' 정도로, 15% 미만이었다. 이때 추가적으로 평균이 낮은 문항들을 살펴본 결과, 부정적 정서 단어를

포함한 문항 외에, 외상 당시 경험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 조건에서 문항 평균이 낮은 경향성을 발견했다. 이는 수치심이 사회적인 정서이며, 대인관계에서의 권력 상실 지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Budden, 2009; Wilson et al., 2006). 다음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 특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 참여자의 PCL-5 총점 평균이 25.93($SD=17.54$)이었으며, 이동훈 등(2022)이 제안한 PCL-5의 절단점 26점을 기준으로 적용했을 때 절단점 이상인 경우는 192명(49.2%)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심각한 복합 외상이나 외상 관련 수치심 경험에 상대적으로 적은 집단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속성점수나 개별문항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으며, 참여자들이 경험한 외상이나 외상 관련 수치심이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개별문항 중 좀 더 부정적인 정서 단어를 포함한 문항(7, 12, 23번 문항)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셋째, K-TRSI의 4점 척도는 국내의 외상 경험자에게 적용할 때도 적절한 응답 범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K-TRSI는 원척도와 마찬가지로 0점부터 3점까지의 4점 Likert식으로 측정하여도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문항 내용의 적합성 부분에서 Infit과 Outfit 지수 모두 0.7 이하 혹은 1.3 이상인 문항은 수정 및 제거가 필요하다는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13번 문항 ‘외상 경험으로 인해, 내게서 없애고 싶은 면이 생겼다’만 Outfit이 1.31로, 예외적인 응답 패턴이 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다만, 극단값에 민감한 Outfit의 보완으로 Infit이 함께 사용되며(Bond & Fox, 2013) 기준치는 연구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Karabasos, 1997). 이를 적용하면 13번 문항의 Outfit 값은 기준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고 Infit은 1.25로 적절하여, 13번 문항 또한 적절한 것으로 간주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해석되었다.

다섯째, 성별에 따른 K-TRSI 문항의 기능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따라 외상 관련 수치심을 다르게 보고하게 하는 문항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기능하는 문항은 검사의 구인타당도를 저해한다는 문항반응이론의 관점으로 볼 때(Rasch, 1960) 본 척도의 구인타당도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성별에 따라 외상 사건의 경험 빈도가 달랐음에도 문항 기능에 차이가 없다는 것은 외상 유형에 따라서도 K-TRSI 문항 기능 차이가 없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K-TRSI에 대한 수렴 및 변별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K-TRSI는 외상 관련 수치심과 유사한 정서인 외상 관련 죄책감과 PCL-5와 강한 정적 상관을 보여, 외상 관련 정서 및 증상 예측에 유용할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수치심은 자기 자신을 판단하여 부정적인 특징을 과잉 동일시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관계로부터 철수하여 고립되는 특징을 가진다는 점(Gilbert, 1997; Lewis, 1971; Tracy & Robins, 2004; Økstedalen et al., 2014)에서 긍정적인 자기자비인 자기친절, 보편적 인간성, 마음챙김 요인과 낮거나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관계, 부정적인 자기자비인 자기판단, 고립, 과잉동일시와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은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마음챙김은 개인의 실패와 고통을 억누르거

나 과장하지 않고 인식하는 과정이자(Neff, 2003b), 수치심을 상쇄시키는 요인이며(Proeve et al., 2018). 자기자비 태도 역시 마음챙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되기 때문에(Kuyken et al., 2010; Neff, 2003b), 외상 관련 수치심과 마음챙김 간 상관의 유의하지 않은 결과는 K-TRSI가 외상 관련 수치심이라는 개념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으며, 이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고 타당한 도구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논의하고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PTSD로 진단받은 집단이 아니라 외상 사건을 경험한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따라서 외상 경험으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참여자들이 대다수이므로, 추후 다양한 유형의 외상을 경험한 PTSD 또는 복합 PTSD(Complex PTSD) 진단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타당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K-TRSI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고 Rasch 모형을 적용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수치심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대인관계 외상 경험자나 복합적인 외상 경험자의 수치심이 더 민감하게 측정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K-TRSI는 아직 총점 환산만이 가능하고 절단점(cut-off)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여 임상적으로 활용하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K-TRSI가 임상적 관심이 필요한 군을 선별할 수 있도록 기준점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 셋째, 자연재해나 성폭력, 학교 폭력 등의 외상 사건 유형에 따른 수치심의 차이나 수치심 관련 다른 척도와의 비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Gilbert(1997)의 이론에 따라 스스로를 평가하

는 내적 수치심과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외적 수치심으로 구분되며, TRSI 원저자는 이를 바탕으로 내적비난, 외적비난, 내적 정서-행동, 외적 정서-행동 수치심 총 4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1요인 구조가 도출되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참여자의 특성 때문인지, 아니면 한국의 사회문화적 영향에서 비롯된 것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선행 연구(Stadter & June, 2020)에서 미국인에 비해 중국인은 수치심을 더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수치스러움을 느낀 일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욕구가 더 컸으며, 미국인은 죄책감과 수치심이 구분할 수 있었으나 중국인은 명확한 구분을 어려워했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이처럼 수치심이 사회적·문화적 규범이나 기대와 관련된 사회적 정서이므로(Saraiya & López-Castro, 2016; Tracy & Robins, 2004), 한국 문화에서 ‘수치스럽다’는 어떻게 인식하고 죄책감과 구분할 수 있는지 후속 연구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임상 및 상담 장면에서 외상 경험 이후의 수치심을 평가하는 것은 심리적 고통과 역기능의 심각도를 파악하고 치료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연구에서 K-TRSI에 대한 타당도를 계속해서 확보함으로써 더욱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경의, 이금단, 조용래, 채숙희, 이우경 (2008).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4), 1023-1044. <https://doi.org/10.1111/j.1532-7795.2008.00341.x>

- org/10.17315/kjhp.2008.13.4.012
- 김소희, 유금란 (2021). 외상경험 강도와 복합외상후 증상의 관계: 감각기억 활성화, 내러티브 파편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3(3), 1289-1313. <https://doi.org/10.23844/kjcp.2021.08.33.1289>
- 김용태 (2010). 사회-심리적 특성으로서 수치심의 이해와 해결. *상담학연구*, 11(1), 59-73. <https://doi.org/10.15703/kjc.11.1.201003.59>
- 송미란, 김영근 (2022). 성인애착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 정서인식명확성과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재활심리연구*, 29(4), 37-55. <https://doi.org/10.35734/karp.2022.29.4.003>
- 송연준, 하문선 (2020). 아동기 외상과 관계중독 간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6(2), 99-119. <https://doi.org/10.20406/kjcs.2020.5.26.2.99>
- 안현의, 박철옥, 주혜선 (2012). 외상 관련 정서의 확장: 수치심, 죄책감, 분노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2), 839-854. <https://doi.org/10.15703/kjc.13.2.201204.839>
- 이동훈, 구민정, 권옥현, 김시형 (2020). PCL-5(DSM-5 기준)의 PTSD 체크리스트 성인 대상 한국판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2), 559-582. <https://doi.org/10.23844/kjcp.2020.05.32.2.559>
- 이동훈, 이덕희, 김성현, & 정다송 (2022). PCL-5(DSM-5 기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체크리스트 한국판 종단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8(2), 187-217. <https://doi.org/10.20406/kjcs.2022.5.28.2.187>
- 이정아, 박경 (2019). 대인간 외상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수치심, 경험회피와 PTSD 증상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6(2), 75-99. <https://doi.org/10.21509/KJYS.2019.02.26.2.75>
- 정희진 (2011). 외상 경험자의 외상 죄책감 특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http://www.riss.kr/link?id=T12275401&outLink=K>
- 홍세희, 이현정, 손수경, 김효진, 윤미리, 강윤경, & 조기현. (2018). 청소년 회복탄력성 척도의 Rasch 모형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15(2), 107-124. <https://doi.org/10.14816/sky.2019.30.2.273>
- 홍세희, 조용래 (2006). 역기능적 신념검사 단축판의 구성: Rasch 평정척도모형의 적용.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3(3), 865-880. <https://kjcp.v.25/3/865/16415>
- Aakvaag, H. F., Thoresen, S., Wentzel-Larsen, T., Dyb, G., Røysamb, E., & Olff, M. (2016). Broken and guilty since it happened: A population study of trauma-related shame and guilt after violence and sexual abus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00(204), 16-23. <https://doi.org/10.1016/j.jad.2016.06.004>
- Adler, A. B., Wright, K. M., Bliese, P. D., Eckford, R., & Hoge, C. W. (2008). A2 diagnostic criterion for combat-relate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1(3), 301-308. <https://doi.org/10.1002/jts.20336>
- Andrews, B., Brewin, C. R., Rose, S., & Kirk, M. (2000). Predicting PTSD symptoms in victims of violent crime: The role of shame, anger, and childhood ab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1), 69-73. <https://doi.org/10.1037/0021-843x.109.1.69>
- Andrich, D. (1978). A rating formulation for ordered response categories. *Psychometrika*, 43(4), 561-73. <https://doi.org/10.1007/bf02293814>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American Psychiatric Pub. <https://doi.org/10.1176/appi.books.9780890425596>
- Bachman, L. F., Lynch, B. K., & Mason, M. (1995). Investigating variability in tasks and rater judgements in a performance test of foreign language speaking. *Language Testing*, 12(2), 238-257. <https://doi.org/10.1177/026553229501200206>

- Badour, C. L., Tipsword, J. M., Jones, A. C., McCann, J. P., Fenlon, E. E., Brake, C. A., & Adams Jr, T. G. (2022).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and daily experiences of posttraumatic stress and mental contamination following sexual trauma. *Journal of Obsessive-compulsive and Related Disorders*, 36, Article 100767. <https://doi.org/10.1016/j.jocrd.2022.100767>
- Beck, J. G., McNiff, J., Clapp, J. D., Olsen, S. A., Avery, M. L., & Hagewood, J. H. (2011). Exploring negative emotion in women experienc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Shame, guilt, and PTSD. *Behavior Therapy*, 42(4), 740-750. <https://doi.org/10.1016/j.beth.2011.04.001>
- Bhuptani, P. H., & Messman, T. L. (2021). Role of blame and rape-related shame in distress among rape victims.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15(4), 557-566. <https://doi.org/10.1037/tra0001132>
- Bond, T. G., & Fox, C. M. (2013). *Applying the Rasch model: Fundamental measurement in the human sciences*. Psychology Press. <https://doi.org/10.4324/9780429030499>
- Brennan, R. L. (1992). Generalizability theory. *Educational Measurement: Issues and Practice*, 11(4), 27-34. <https://doi.org/10.1111/j.1745-3992.1992.tb00260.x>
- Brewin, C. R., Andrews, B., & Rose, S. (2000). Fear, helplessness, and horror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vestigating DSM-IV criterion A2 in victims of violent crim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3(3), 499-509. <https://doi.org/10.1023/a:1007741526169>
- Budden, A. (2009). The role of shame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 proposal for a socio-emotional model for DSM-V. *Social Science & Medicine*, 69(7), 1032-1039. <https://doi.org/10.1016/j.socscimed.2009.07.032>
- Cook, D. R. (1987). Measuring shame: The Internalized Shame Scale.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4, 197-215. <https://doi.org/10.1037/t04998-000>
- Crawford, A. V., Green, S. B., Levy, R., Lo, W. J., Scott, L., Svetina, D., & Thompson, M. S. (2010). Evaluation of parallel analysis methods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factor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70(6), 885-901. <https://doi.org/10.1177/0013164410379332>
- DePrince, A. P., Zurbriggen, E. L., Chu, A. T., & Smart, L. (2010). Development of the trauma appraisal questionnaire.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19(3), 275-299. <https://doi.org/10.1080/10926771003705072>
- DeMars, C. (2010). *Item response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93/acprof:oso/9780195377033.001.0001>
- Dorahy, M. J., & Clearwater, K. (2012). Shame and guilt in men exposed to childhood sexual abuse: A qualitative investigation.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21(2), 155-175. <https://doi.org/10.1080/10538712.2012.659803>
- Dorahy, M. J., Corry, M., Shannon, M., Webb, K., McDermott, B., Ryan, M., & Dyer, K. F. (2013). Complex trauma and intimate relationships: The impact of shame, guilt and dissociat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47(1-3), 72-79. <https://doi.org/10.1016/j.jad.2012.10.010>
- Dorans, N. J., Schmitt, A. P., & Bleistein, C. A. (1992). The standardization approach to assessing comprehensive differential item functioning. *Journal of Educational Measurement*, 29(4), 309-19. <https://doi.org/10.1111/j.1745-3984.1992.tb00379.x>
- Ehlers, A., & Clark, D. M. (2000). A cognitive model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8(4), 319-345. <https://doi.org/10.1016/j.socscimed.2009.07.032>

- doi.org/10.1016/s0005-7967(99)00123-0
- Feiring, C., & Taska, L. S. (2005). The persistence of shame following sexual abuse: A longitudinal look at risk and recovery. *Child Maltreatment, 10*(4), 337-349. <https://doi.org/10.1177/1077559505276686>
- Feiring, C., Taska, L., & Lewis, M. (1996). A process model for understanding adaptation to sexual abuse: The role of shame in defining stigmatization. *Child Abuse & Neglect, 20*(8), 767-782. [https://doi.org/10.1016/0145-2134\(96\)00064-6](https://doi.org/10.1016/0145-2134(96)00064-6)
- Filipas, H. H., & Ullman, S. E. (2006). Child sexual abuse, coping responses, self-blam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adult sexual revictimiz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1*(5), 652-672. <https://doi.org/10.1177/0886260506286879>
- Forkus, S. R., Contractor, A. A., Raudales, A. M., & Weiss, N. H. (2023). The influence of trauma-related shame on the associations between posttraumatic symptoms and impulsivity facets.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15*(4), 576-583. <https://doi.org/10.1037/tra0001288>
- Fox, C. M., & Jones, J. A. (1998). Uses of Rasch modeling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30-45. <https://doi.org/10.1037/0022-0167.45.1.30>
- Gilbert, P. (1997). The evolution of social attractiveness and its role in shame, humiliation, guilt and therapy.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70*(2), 113-147. <https://doi.org/10.1111/j.2044-8341.1997.tb01893.x>
- Hathaway, L. M., Boals, A., & Banks, J. B. (2010). PTSD symptoms and dominant emotional response to a traumatic event: An examination of DSM-IV Criterion A2. *Anxiety, Stress & Coping, 23*(1), 119-126. <https://doi.org/10.1080/10615800902818771>
- Hayton, J. C., Allen, D. G., & Scarpello, V. (2004). Factor retention decision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 tutorial on parallel analysi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7*(2), 191-205. <https://doi.org/10.1177/1094428104263675>
- Herman, J. (2015). *Trauma and recovery*. Pandora.
- Hong, S., Kim, B. S., & Wolfe, M. M. (2005). A psychometric revision of the European American Values Scale for Asian Americans using the Rasch model.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7*(4), 194-207. <https://doi.org/10.1080/07481756.2005.11909760>
- Karabatsos, G. (1997). The sexual experiences survey: Interpretation and validity. *Journal of Outcome Measurement, 1*(4), 305-328.
- Kelly, A. C., Zuroff, D. C., & Shapira, L. B. (2009). Soothing oneself and resisting self-attacks: The treatment of two intrapersonal deficits in depression vulnerabili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3*(3), 301-313. <https://doi.org/10.1007/s10608-008-9202-1>
- Kubany, E. S., Haynes, S. N., Abueg, F. R., Manke, F. P., Brennan, J. M., & Stahura, C. (199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Trauma-Related Guilt Inventory (TRGI). *Psychological Assessment, 8*(4), 428-444. <https://doi.org/10.1037/1040-3590.8.4.428>
- Krüger-Gottschalk, A., Knaevelsrud, C., Rau, H., Dyer, A., Schäfer, I., Schellong, J., & Ehrling T. (2017). The German version of th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checklist for DSM-5 (PCL-5): Psychometric properties and diagnostic utility. *BMC Psychiatry, 17*(1), 379-387. <https://doi.org/10.1186/s12888-017-1541-6>
- Kuyken, W., Watkins, E., Holden, E., White, K., Taylor, R. S., Byford, S., & Dalgleish, T. (2010).

- How does mind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 work? *Behavior Research & Therapy*, 48(11), 1105-1112. <https://doi.org/10.1016/j.brat.2010.08.003>
- Lewis, H. B. (1971). Shame and guilt in neurosis. *Psychoanalytic Review*, 58(3), 419 - 438.
- Lewis, M. (1995). *Shame: The exposed self* The Free Press.
- Meyer, J. P. (2014). *Applied measurement with jMetrik* Routledge. <https://doi.org/10.1111/jedm.12068>
- MacGinley, M., Breckenridge, J., & Mowll, J. (2019). A scoping review of adult survivors' experiences of shame following sexual abuse in childhood. *Health & Social Care in the Community*, 27(5), 1135-1146. <https://doi.org/10.1111/hsc.12771>
- Mantel, N. (1963). Chi-square tests with one degree of freedom; extensions of the Mantel-Haenszel procedure.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58(303), 690-700. <https://doi.org/10.1080/01621459.1963.10500879>
- Neff, K. D. (2003a).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cale to measure self-compassion. *Self and Identity*, 2(3), 223-250. <https://doi.org/10.1080/15298860309027>
- Neff, K. D. (2003b). Self-compassion: An alternative conceptualization of a healthy attitude toward oneself. *Self and Identity*, 2(2), 85-101. <https://doi.org/10.1080/15298860309032>
- O'Connor, B. P. (2000). SPSS and SAS programs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components using parallel analysis and Velicer's MAP test.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ation, and Computers*, 32, 396-402.
- Økstedalen, T., Hagtvet, K. A., Hoffart, A., Langkaas, T. F., & Smucker, M. (2014). The Trauma-Related Shame Inventory: Measuring trauma-related shame among patients with PTSD.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8(4), 600 - 615. <https://doi.org/10.1007/s10862-014-9422-5>
- Proeve, M., Anton, R., & Kenny, M. (2018). Effects of mindfulness based cognitive therapy on shame, self compass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anxious and depressed patients: A pilot study.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91(4), 434-449. <https://doi.org/10.1111/papt.12170>
- Rasch, G. (1960). *Probabilistic models for some intelligence and attainment tests*. Copenhagen: Danish Institute for Educational Research.
- Robinaugh, D. J., & McNally, R. J. (2010). Autobiographical memory for shame or guilt provoking events: Association with psychological symptom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48(7), 646-652. <https://doi.org/10.1016/j.brat.2010.03.017>
- Robinson, M. (2022). *The role of trauma coping self-efficacy and sham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nts of self-blame and psychological outcomes*. (Publication No. 1406). [Master's Thesis,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Bernardino] Electronic Theses, Projects, and Dissertations. <https://scholarworks.lib.csusb.edu/etd/1406>
- Roemer, L., Orsillo, S. M., Borkovec, T. D., & Litz, B. T. (1998). Emotional response at the time of a potentially traumatizing event and PTSD symptomatology: A preliminary retrospective analysis of the DSM-IV criterion A-2.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29(2), 123-130. [https://doi.org/10.1016/s0005-7916\(98\)00007-x](https://doi.org/10.1016/s0005-7916(98)00007-x)
- Saraiya, T., & Lopez-Castro, T. (2016). Ashamed and afraid: A scoping review of the role of shame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Journal of Clinical Medicine*, 5(11), Article e5110094.

- <https://doi.org/10.3390/jcm5110094>
- Sedighimorani, N., Rimes, K. A., & Verplanken, B. (2019). Explor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Mindfulness, Self-compassion, and shame. *SAGE Open*, 9(3), 1-9. <https://doi.org/10.1177/2158244019866294>
- Shavelson, R. J., & Webb, N. M. (1991). *Generalizability theory: A primer*. Sage.
- Soberay, K. A. (2018). *The association of military sexual trauma severity with risky and suicidal behaviors: Risk factors for premature mortality examined through an interpersonal theory* (Publication No. 13418893)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Colorado at Denver] ProQuest Dissertations and Theses Global. <https://www.proquest.com/dissertations-theses/association-military-sexual-trauma-severity-with/docview/2165519050/se-2?accountid=16340>
- Stadter, M., & Jun, G. (2020). Shame East and West: Similarities, differences, culture, and self. *Psychoanalysis and Psychotherapy in China*, 3(1), 1-21. <https://doi.org/10.33212/ppc.v3n1.2020.1>
- Tangney, J. P. E., & Fischer, K. W. (1995). *Self-conscious emotions: The psychology of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Guilford Press.
- Tangney, J. P., Wagner, P. E., & Gramzow, R. (1989). *The test of self-conscious affect (TOSCA)*. George Mason University, Fairfax, VA.
- Timblin, H., & Hassija, C. M. (2022). How will I be perceived: The role of trauma-related sham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distress and expectations of disclosure among survivors of sexual victimiz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8(7-8), 5805-5823. <https://doi.org/10.1177/1077801220988350>
- Tipsword, J. M., Brown-Iannuzzi, J. L., Jones, A. C., Flores, J., & Badour, C. L. (2022). Avoidance coping partially account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rauma-related shame and PTSD symptoms following interpersonal trauma. *Violence Against Women*, 28(1), 107-125. <https://doi.org/10.1177/1077801220988350>
- Tracy, J. L., & Robins, R. W. (2004). Putting the self into self-conscious emotions: A theoretical model. *Psychological Inquiry*, 15(2), 103-125. https://doi.org/10.1207/s15327965pli1502_01
- Velicer, W. F., Eaton, C. A., & Fava, J. L. (2000). Construct explication through factor or component analysis: A review and evaluation of alternative procedures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factors or components. In R. D. Goffin & E. Helmes (Eds.), *Problems and solutions in human assessment: Honoring Douglas N. Jackson at seventy* (pp. 41-71).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https://doi.org/10.1007/978-1-4615-4397-8_3
- Weathers, F. W., Litz, B. T., Keane, T. M., Palmieri, P. A., Marx, B. P., & Schnurr, P. P. (2013). *The PTSD Checklist for DSM-5 (PCL-5)*. Scale available from the National Center for PTSD. <https://www.ptsd.va.gov>
- Wetterlöv, J., Andersson, G., Proczkowska, M., Cederquist, E., Rahimi, M., & Nilsson, D. (2021). Shame and guilt and its relation to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 of trauma in adolescence, a brief report. *Journal of Family Violence*, 38(7), 865-870. <https://doi.org/10.1007/s10896-020-00224-7>
- Wilson, J. P., Droždek, B., & Turkovic, S. (2006). Posttraumatic shame and guilt. *Trauma, Violence, & Abuse*, 7(2), 122-141. <https://doi.org/10.1177/1524838005285914>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July 26).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11)*. <https://icd.who.int/browse11/1-m/en>

- Wortmann, J. H., Jordan, A. H., Weathers, F. W., Resick, P. A., Dondanville, K. A., Hall-Clark, B., & Litz, B. T. (2016). Psychometric analysis of the PTSD Checklist-5 (PCL-5) among treatment-seeking military service members. *Psychological Assessment*, 28(11), 1392-1403. <https://doi.org/10.1037/pas0000260>
- Zwick, W. R., & Velicer, W. F. (1986). Comparison of five rules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components to retain. *Psychological Bulletin*, 99(3), 432-442. <https://doi.org/10.1037//0033-2909.99.3.432>

원고접수일: 2024년 9월 23일

논문심사일: 2024년 12월 9일

게재결정일: 2024년 12월 9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25, Vol. 30, No. 1, 149 - 169

Psychometric properties of Korean version of the Trauma-Related Shame Inventory (K-TRSI)

Juhee Kim

Sung Yong Park

Yun-Kyeong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Keimyung University

Trauma-experienced individuals often feel shame, a self-conscious emotion linked to a negative overall evaluation of the self, during and after a traumatic event as they re-evaluate and interpret it. Shame is a significant predictor of psychological distress and PTSD symptoms. This study aimed to establish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Trauma-Related Shame Inventory (TRSI) after adapting it for the Korean population. To achieve this, we analyzed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TRSI through parallel and Rasch analyses, as well a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tests. Participants included 390 adults who had experienced a traumatic event, and data were collected via an online survey.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one-factor model of the K-TRSI was adequate, the response categories of the items were appropriate, and there were no gender-specific discriminant items. Furthermore, correlation analyses with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trauma-related guilt, and self-compassion demonstrated that the K-TRSI is a valid tool for measuring trauma-related shame. The potential applications of the K-TRSI in various clinical and research settings were discussed, along with the study's limitation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Keywords: Trauma-related Shame, Validity, Rasch